

목포 남항, 국내 유일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우뚝'

전기 추진 차도선·배터리 개발 등 테스트베드 구축

목포시가 친환경선박을 앞세워 신산업을 개척하는 항로를 열어간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남항을 전기 추진 차도선과 배터리, 친환경 혼합연료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메카로 조성한다.

친환경선박은 기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산업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전세계 조선·해운시장은 유류선박에서 친환경선박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세계 친환경선박의 시장 가치는 165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정부도 환경 문제의 대안이 되고 성장가능성도 무궁한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이어 친환경선박기본계획인 '2030 그린십-K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 같은 국내외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해 지난해 남항에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성 사업



전기 추진 차도선 개념도.

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부 공모 사업인 450억원 규모의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496억원)도 공모절차를 걸쳐 유치할 예정이다.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추진 차도선과 여기에 필요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사업,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혼합연료 등 친환경선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남항에서 추진된다.

연구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실증, 인증,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뤄져 목포 남항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



목포시는 남항을 전기 추진 차도선과 배터리, 친환경 혼합연료 개발 등 친환경선박 메카로 조성한다. 사진은 목포 남항 전경. <목포시 제공>

선박산업 클러스터로 우뚝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관련 기업들이 한데 모이면 연간 4만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최대 2조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친환경선박 산업은 목포 여

건에 적합하고 성장 가능성도 대단히 큰 신산업"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 먹거리로, 목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 우수영 5일장 확 넓어지겠네

청년몰 등 복합광장 6월 준공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5일시장에 청년몰 등이 들어서는 복합광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해남군은 지역 대표 어시장인 우수영5일시장 내 900㎡ 규모의 복합광장을 오는 6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는 복합광장에는 휴게광장을 비롯해 청년몰 5개소, 화장실 등이 조성된다.

특히 청년몰은 청년창업 등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집계된 전통시장에 활력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영5일시장은 60여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는 전통 시장이다.

명량대첩지인 우수영 관광지와 문화마을이 인접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광장이 조성되면 전통시장 이용객과 인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청년몰 운영과 함께 각종 문화 공연 등이 열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LPG 배관망 구축... 14개 마을 가스 공급

교동리 등 3000가구 3월 완료

진도 14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통한 가스 공급이 시작됐다.

진도군은 최근 진도공설운동장 인근 LPG 저장소에서 배관망 구축사업 개통행사를 열고, 교동리 일원부터 LPG 공급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도군은 배관망 구축과 가정의 기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공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3월 각 가정에 LPG 공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연료비 지출로 주민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와 산간지역 중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도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총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으로 진도읍 14개 마을 3000여 가구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주민들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생활이 어려운 주거복지 대상자를 위해 'LPG 희망추진 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의 100%, 차상위 계층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은 진도읍 14개 마을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마치고 최근 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은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을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 신청율이 93%에 달했으며, 공용 배관망과 각 가정에 다기능 가스계량기, 타이머폭,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배려와 참여로 안전

하게 공사를 진행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향상되는 등 에너지 복지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군·(주)유테크, 대마산단에 29억 투자협약

공유 키보드 개발·수출형 고성능 전동키보드 생산

영광군은 최근 전동키보드·전자전자 생산업체인 (주)유테크(대표 최효성)와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유테크는 대마산단지 3302㎡(약 1000평) 부지에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1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테크는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R&D)을 통해 이미 공유키보드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공유키보드 서비스 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수출형 고성능 전동키보드도 생산해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대마산단에 개인형 이동수단(PM) 전문 생산업체가 입주해 매우 기쁘다"며 "기업유치를 통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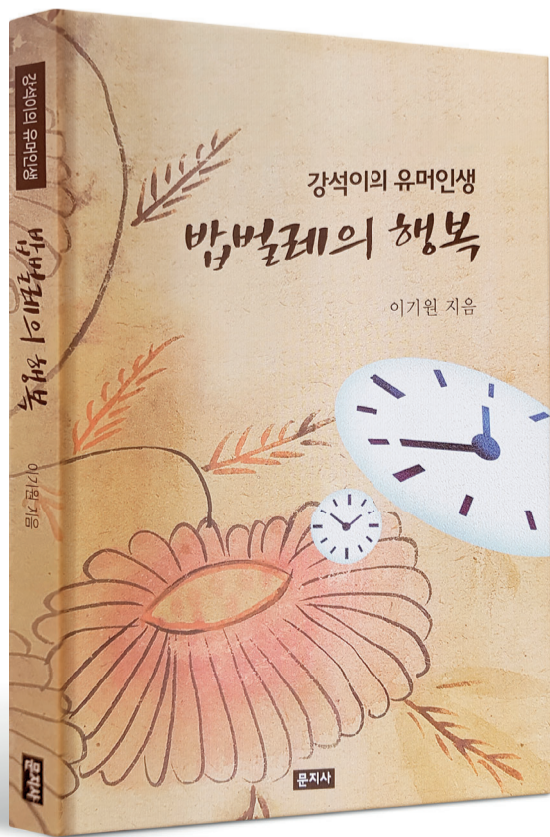


김준성(오른쪽) 영광군수와 최효성(주)유테크 대표가 최근 영광군청에서 대마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 제공>

한편, 영광군은 민선 7기 들어 32개 기업과 223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마산단지 100%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8개 업체와 454억원의 투자협약을 맺어 24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영광=이중훈 기자 jylee@kwangju.co.kr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꾸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 |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